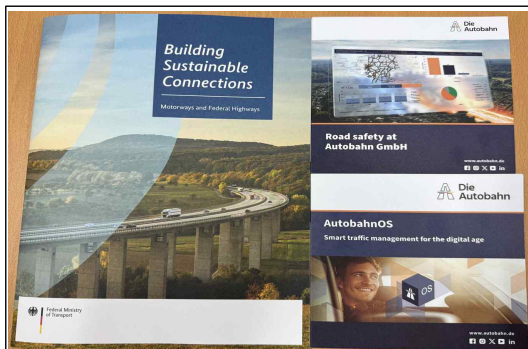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항만연구본부	성명	김근섭	직급	선임연구위원	보안교육	O
				김은우		연구위원		O
				안승현		부연구위원		수강여부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OECD-ITF 서밋(교통장관회의) 참석 및 패넬토론 - 국제공동연구 기획 간담회 개최 및 국제협력 업무협의							
관련사업 (예산항목)	- 「항만부문 국제협력 강화 사업」(적립금) (기간 : 26.04.01. ~ 12.31.) -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2차)」(수탁) (기간 : 26.04.09. ~ 12.31.)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 반영	□ 출장지 대체	■ 해당없음(수탁)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	성명	보유 마일리지		활용계획		미활용 사유		
	김근섭	138,819		-		마일리지 좌석 부족		
	김은우	-		-		마일리지 좌석 부족		
	안승현	49,843		-		마일리지 좌석 부족		
출장기간	26.05.04.(월) ~ 10(일) (5박 7일)			출장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비고	
	05.04(월)	부산(08:00)→인천(09:10) 인천(10:50)→프랑크푸르트(17:40)			항공이동		KE1404 OZ541	
	05.05(화)	프랑크푸르트(13:30)→라이프치히(14:30)			항공이동		LH154	
		오후	Congress Center		ITF 서밋 등록 및 전시부스 참관		인원 제한으로 참석 불가	
	저녁	DHL 항공화물 허브		DHL 항공화물 허브 견학				
	05.06(수)	오전	Amazon 풀필먼트센터		Amazon 풀필먼트센터 견학			
		오후	Congress Center		서밋 참석 및 세션 토론			
	05.07(목)	오전	포르쉐 공장		포르쉐 공장 견학			
		오후	Congress Center		ITF 서밋 전시부스 참관 KMI-ITF 공동연구 기획 간담회			
	05.08(금)	오전	Congress Center		서밋 참석			
		오후	Congress Center		KMI-OECD 공동연구 업무협의			
	05.09(토)	라이프치히(10:50)→프랑크푸르트(11:50) 프랑크푸르트(19:40)→인천(14:35)			항공이동		LH153 OZ542	
	05.10(일)	부산(17:10)→인천(18:20)					KE1405	
출장성과	■ ITF 서밋 주요 세션에 참석하여 교통 회복탄력성, 지속가능한 물류,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투자 및 공급망 안정성 등 국제 교통정책의 주요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세션 토론에 참여하여 KMI의 항만 분야 관련 연구 성과를 확산함 ■ ITF 서밋의 주요 운영방식(전체회의, 병행세션, 사이드 이벤트, 연구세션 등)과 항만-물류 분야 연계 가능 의제 및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KMI의 서밋 참여와 연구성과정책의제의 국제적 공유논의 가능성을 확인함							
향후계획	■ ITF 등 주관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 물류세션 개최(26.9.8.(화), 서울) 준비 및 관계기관 협력 추진 ■ OECD 항만지역 프로그램 대응을 위한 자료 제공 및 국내 항만 전문가 추천 ■ GSTIKC 주관 ‘글로벌 지속가능 교통 인문교류 고급연수 프로그램’(주최측 지원) 참여 가능성 검토 ■ 2027년 ITF 서밋 내 KMI 주도 연구세션 기획·구성 방안 준비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DHL 항공화물 허브 견학(5월 5일(화))은 신청자 과다로 인해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라이프치히 도착 당일까지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참석 인원 제한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5.5.(화) 오후 ITF 서밋 전시부스 참관 및 글로벌 특송 물류허브 견학
수행계획	□ (오후) 글로벌 교통·물류 분야 주요 기업·기관 전시부스 참관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글로벌 교통·물류 분야 기술·정책 동향 파악 - 전시 참여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가능성 탐색 □ (저녁) DHL 항공화물 허브 단체 견학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항공 특송 허브의 야간 집중 처리 방식 및 운영 구조 - 친환경·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류 시스템 및 첨단 물류 인프라 운영 동향
수행결과	1) ITF 서밋 등록 및 전시부스 참관 □ 일시 및 장소: 2026.5.5.(화) 17:00~18:30 / Congress Center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독일 연방교통부(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부스 참관 및 자료 확보 - 독일 연방교통부는 교통·이동성을 국민 생활, 경제활동 및 지역 간 연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 또한 실용성, 효율성, 미래 대응성을 강조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동성과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가 나타남 - 이번 참관을 통해 독일이 교통정책을 인프라 공급 차원이 아니라 지역 연결성 강화, 탄소중립 대응, 국민 생활 편의 제고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파악함 ◦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DOT) 부스 참관 및 자료 확보 - USDOT 부스에서는 미국 교통부의 주요 정책자료로 「Advanced Air Mobility National Strategy」,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trategic Plan FY2026-2030」,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확보함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자료는 BIM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사업의 디지털 관리 방안을 소개하고 있으며,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의 설계·시공·운영·유지관리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통합·연계하는 방식을 설명함 - 특히 BIM은 관계기관과 사업 참여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설계 오류 감소, 공정 관리 개선, 비용 절감, 유지관리 효율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번 참관을 통해 USDOT가 미래 항공모빌리티, 중장기 교통정책 전략, 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주요 정책 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인프라 관리와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을 병행하고 있음을 파악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2) DHL 항공화물 허브 단체 견학(신청자 과다로 참석 불가) □ 일시: 2026.5.5.(화) 21:00-00:30 / DHL 항공화물 허브 □ 신청자 과다로 단체 견학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5월 5일 라이프치히 도착 당일까지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인원 초과로 인해 견학 참석이 불가하였음 ----- Original Message ----- From : "KAYES Bryony, ITF/IFRS" <bryony.kayes@itf-opsd.org> To : 김은우 <gusw@kma.go.kr> Cc : ITF Summit <itf-summit@kma.go.kr> Sent : 2026-05-05 20:45:50 Subject : RE: Inquiry About Technical Tour Availability Dear Eunwoo Kim, Thank you for your email. There are actually still a few spots available for the Amazon tour, and we can book you in. Could you please tell me the name of your colleague who will be joining you on the tour? Unfortunately, the DHL Tour is already fully booked. Kind regards, Bryony
업무②	5.6.(수) 오전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견학
수행계획	□ (오전) Amazon 풀필먼트센터 단체 견학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풀필먼트센터의 입고-보관-피킹-패킹-출고 통합 물류 운영 프로세스 - 대형 상품 중심 물류 운영 특성 및 처리 방식 - 자동화 설비 및 고밀도 보관 시스템 활용 방식
수행결과	□ 일시 및 장소: 2026.5.6.(화) 08:30~11:00 / Amazon 풀필먼트센터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 안승현 부연구위원은 세션(11:00~12:30) 발표자 및 토론자 사전 미팅(장소: Congress Center) 참석 □ 주요 내용 ◦ 아마존 라이프치히 물류센터는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거점이 아니라, 분류 센터 및 아마존 배송 스테이션으로 물량을 연결하는 미들마일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고도의 자동화보다는 표준화된 작업 절차와 작업자 중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입고, 보관, 피킹, 포장 등 주요 공정은 스캔-검수-시스템 연계를 통해 관리되며, 이를 통해 재고 위치와 주문 흐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처리 속도 외에 재고 정확도, 품질관리, 작업자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관리하고 있음 - 작업자는 안전·인체공학·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이수하며, 중량물 취급 시 보조장비를 활용 하고 차량 운전자는 별도 안전 및 운전 교육을 받음 ◦ 향후 고속 분류·보충 기능을 수행하는 1DC(One Distribution Center) 형태로 전환하여 지역 내 당일배송 대응력과 물류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기능 전환 과정에서 자동화 설비뿐 아니라 기존 인력 재배치, 교육, 작업공간 재구성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음 ◦ 스마트 물류 전환은 자동화 설비 도입뿐만 아니라, 작업자 안전, 데이터 기반 운영관리, 표준화된 프로세스, 작업자 안전 및 기능 전환 과정의 조직관리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③	5.6.(수) 오후 ITF 서밋 참석
수행계획	□ (오후) ITF 서밋 참석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패널토론) ◦ 주요 내용 - 세션(장기적 관점: 회복력 있는 인프라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참석 - 서밋 개막 본회의(회복력 투자의 가치와 현실적 한계) 참석
수행결과	1) (세션) 장기적 관점: 회복력 있는 인프라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일시 및 장소: 2026.5.6.(화) 11:00~12:30 / Congress Center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토론) □ 주요 내용 ◦ 회복탄력적 인프라는 추가 비용 관점에 볼 것이 아니라, 위기 발생 시 교통·물류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논의됨 - 사우디아라비아와 도미니카공화국은 회복탄력성 투자를 국가전략, 생명 보호, 경제손실 예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향후 인프라 투자 평가에는 기후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가격 충격, 공급망 교란 등 장기적·복합적 위험과 미래 회피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비용편익분석은 단기적 경제성, 개별사업의 직접 편익 및 재무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장기적 위험 회피 효과와 시스템 연속성 확보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항만·물류 분야 시스템 리스크 및 대응 방향 제시(토론: 안승현 부연구위원) - 항만 운영 중단은 항만 내부의 처리 지연에 그치지 않고, 내륙교통, 화물운송, 창고, 에너지, 디지털 시스템 및 공급망 전반으로 연쇄 확산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항만·물류 인프라 평가는 개별시설의 경제성이나 처리능력 중심에서 벗어나, 교통 수단 간 상호 의존성과 공급망 전체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체 항만, 대체 경로, 복수 운송수단 확보, 전력·연료·디지털 시스템의 회복탄력성, 민간 운영자의 현장 지식, 지역사회 수용성, 국가전략 및 투자 우선순위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회복탄력적 항만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스템 전체의 연속성 확보, 위험 분산,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 구축, 장기적 투자 판단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함 ◦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체 경로, 여유 능력, 재고 버퍼, 복수 운송수단, 에너지 다변화 등을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화석연료 가격 변동과 지정학적 공급 충격은 교통·물류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화, 재생에너지 확대, 충전 인프라, 전력망 안정성, 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 회복탄력성을 교통 회복탄력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회복탄력적 인프라 구축은 정부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민관협력, 민간투자, 국제협력, 지역정부 참여 등 다양한 자원 조달 방식이 필요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2) (전체회의) 회복탄력 투자의 가치와 현실적 한계

□ 일시 및 장소: 2026.5.6.(화) 13:30~15:00 / Congress Center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교통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신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핵심 교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노르웨이는 산사태, 홍수, 눈사태 등 극한기상으로 도로·철도 운영 중단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신규 대형 사업보다 기존 인프라의 운영, 유지보수, 개선 투자를 우선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스페인은 기후변화가 교통 인프라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인프라 설계·건설·관리·유지보수 전 과정에 기후변화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함
 - 중국은 홍해 위기 등으로 기존 해상운송 경로의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유럽 간 트랜스카스피 회랑 등 대체 물류경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함
 - 민간 부문에서는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데이터 신뢰성, 생애주기 관리, 독립적 검증, 공급망 투명성, 서비스 신뢰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함
- 공공교통 조달 방식은 최저가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가치, 서비스 가용성, 에너지 효율성, 안전성, 공급망 안정성 등을 반영한 성과 중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교통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 비용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유지보수, 서비스 지속성, 안전, 기후 적응, 디지털 보안, 공급망 회복력, 민관협력, 안정적 자원 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3) (사이드 이벤트) 회복탄력적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수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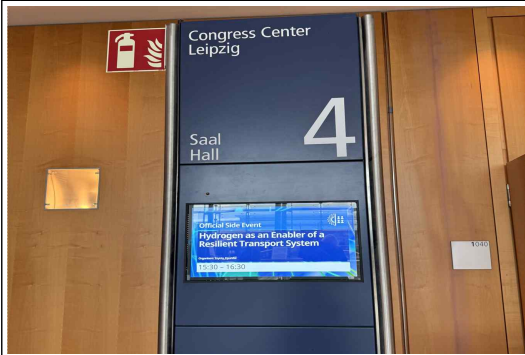
□ 일시 및 장소: 2026.5.6.(화) 15:30~16:30 / Congress Center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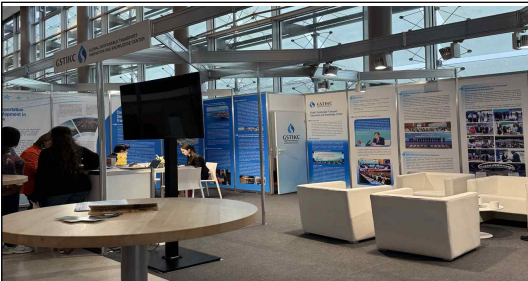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교통 회복탄력성의 개념으로 충격에 견디는 강건성, 충격 이후 회복하는 복원성, 충격에 변화·적응하는 재생 개념이 제시됨
 - 교통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물리적 자산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충격 속에서도 사람들이 필요한 기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이 있음
- 수소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저장·운송 가능한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장기·대규모 저장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은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이며,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망 혼잡, 발전량 변동성, 장기 저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수소는 암모니아, 합성연료 등으로 전환이 가능해 에너지 운송과 저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기화된 에너지 시스템에서 전기와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수소 모빌리티는 대형 화물차 등 장거리·고중량 운송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대형 트럭은 주행거리, 적재량, 운행시간이 중요하므로, 충전 시간이 짧고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수소연료전지 방식이 운영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배터리 구동 전기차와 수소연료 구동 전기차는 상호 경쟁 관계라기보다, 운송 거리, 화물 중량, 운행 조건에 따라 병행 활용될 수 있는 보완적 기술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수소충전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승용차보다 수소 소비량이 큰 대형 트럭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으로 제시됨 ◦ 수소 모빌리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시장을 집중적으로 형성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모든 지역에 동시에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 수요와 공급이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에코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후 이를 수소 회랑으로 연결해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이 제안됨 - 수소충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급망을 최적화할 경우 수소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액체 수소 공급 등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정책적으로는 충전소와 차량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차량·충전 인프라·수요를 함께 묶어 지원하는 생태계형 지원 방식이 필요함  
업무④	5.7.(목) 오전 포르쉐 공장 단체 견학
수행계획	□ (오전) 포르쉐 공장 단체 견학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모듈형 생산방식 기반 유연생산 시스템 -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생산 시스템 - 자동차 제조와 물류·공급망 간 연계 구조
수행결과	□ 일시 및 장소: 2026.5.7.(화) 08:30~11:30 / 포르쉐 생산공장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포르쉐 라이프치히 공장은 생산, 물류, 품질검사, 전동화 대응, 고객 체험, 생태 보전 기능이 결합된 제조·브랜드 체험 복합형 생산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02년 카이엔 생산을 시작으로 운영을 개시한 이후 파나메라, 마칸 등으로 차종을 확대하며 포르쉐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발전함 - 공장 인근에는 고속도로, 항공, 철도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완성차는 철도를 통해 독일 북부 항만으로 이동한 뒤 아시아, 북미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됨 - 포르쉐 익스피리언스 센터, 레스토랑, 카페, 박물관, 디자인 스토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은 차량 인도 전후로 온로드 트랙과 오프로드 코스에서 주행 체험을 할 수 있음 ◦ 생산공정은 차체 제작, 도장, 버퍼 보관, 사전 조립, 차체와 구동계 결합, 최종 조립 순으로 운영되며,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 다양한 구동 방식을 하나의 생산체계 안에서 처리하는 혼합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음 ◦ 공장 내 생산·물류 관리는 자동화 설비와 숙련 작업자의 수작업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차체 이송, 도장, 반복 조립 등 주요 공정에는 로봇과 자동화 장비가 활용되며, 부품 공급에는 무인운송차 등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적용되어 혼합 생산을 지원함 -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작업자의 정밀한 수작업과 품질관리가 병행되어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함 ◦ 전동화 대응 과정에서 고전압 배터리, 자동 체결, 비전 검사 등 전기차 특화 품질관리 기술이 강화되고 있음 - 배터리 관련 공정에서는 이물질, 부품 오투입 등을 점검하는 검사체계가 활용되며, 도장 및 조립 공정에서도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를 통해 공정 안정성을 높이고 있음  * 내부촬영 불허
업무⑤	5.7.(목) 오후 ITF 서밋 참석 및 ITF-KMI 간담회 개최
수행계획	□ (오후) ITF 서밋 참석 및 KMI-OECD ITF 간담회 개최 ◦ 참석자: KMI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ITF 권호정 서기관 등 ◦ 주요 내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ITF 간 국제공동연구 기획 논의
수행결과 수행결과	1) ITF 서밋 전시부스 참관 □ 일시 및 장소: 2026.5.7.(화) 13:00~14:00 / Congress Center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글로벌 지속가능 교통 혁신·지식센터(GSTIKC, Global Sustainable Transport Innovation and Knowledge Center) 자료 확보 및 연수 프로그램 정보 파악 - GSTIKC는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와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기관임 - 동 센터는 지속가능 교통과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목표로 국가 싱크탱크, 국제 협력 및 성과 전시 플랫폼, 민간 교류 촉진 창구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지속가능 교통 분야에서 정책 연구, 지식 공유, 국제 협력, 우수사례 확산 등을 추진하며, 중국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GSTIKC가 주도하여 작성한 'COSCO Shipping Europe 2025년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확보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및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COSCO Shipping Europe의 ESG 분야 컴플라이언스 실천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함 - GSTIKC는 '글로벌 지속가능 교통 인문교류 고급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 교통 분야의 전문 역량 강화와 국제 인문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KMI 연구진도 참여 가능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2) ITF 사무총장 면담 및 ITF-KMI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6.5.7.(화) 14:30~16:30 / Congress Center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권호정 서기관
- 프로그램

일정	내 용
14:30 ~ 14:40	■ ITF 사무총장 면담
< ITF-KMI 간담회 >	
14:40 ~ 14:45	■ 참석자 소개
14:45 ~ 15:05	■ 2026년 KMI 항만분야 주요 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우 실장
15:05 ~ 15:25	■ 「미 선박법」과 한국 항만분야 기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15:25 ~ 15:45	■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과 연계한 국제공동연구 기획 동향 - ITF 권호정 서기관
15:45 ~ 16:30	■ 토론 - KMI-ITF 협력방안 논의

□ 주요 내용

○ KMI 항만분야 주요 연구

- 항만연구본부는 항만정책, 항만산업, 항만수요, 공공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항만 분야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하고 있음
- 항만산업연구실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술 개발, 운영 효율화, AI·디지털 기반 혁신, 신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 안전·보안 관리, 해외항만 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수행하고 있음
- 2026년은 항만 기능 확대와 신산업 활성화, 북극항로 대응, 항만기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기반 마련과 함께, 항만 운영 효율화, AI·디지털 기반 기술 적용 확대, 항만 재난·사고 대응 체계 구축, 시설장비 관리 고도화, 수리조선단지 추진 및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개편 등 항만 운영·기술·안전·제도 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미 선박법」과 한국 항만분야 기회

- 미국 의회가 발표한 「미 선박법」(25.12)에는 조선업 재건뿐만 아니라 전략 상선대 확보, 항만 시설 현대화, 해양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미국이 자국 조선·해운 역량을 회복하는 동시에, 항만 인프라 현대화와 해양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국가 물류안보와 무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책 흐름과 연계됨
- 이에 따라 미국 내 노후 항만 인프라 개선, 하역장비 교체, 친환경·자동화 장비 도입, 디지털 운영 솔루션 구축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산업부는 'MASGA' 전략을 통해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돕고 미해군의 MRO 수요 확보 및 미국 조선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음
- 항만과 해운 분야도 미국 정책과 연계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미국의 안정적인 항만인프라 공급과 우리 기업의 해외거점 확보 및 항만기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 검토 필요

○ ITF 국제공동연구 기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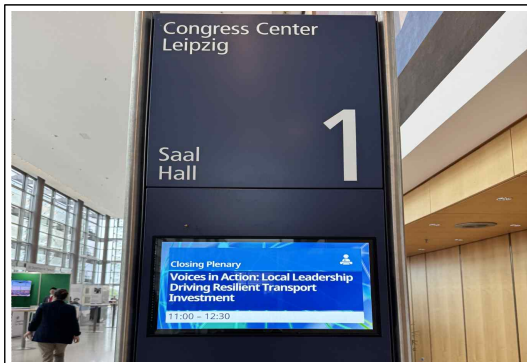
- MAGA 정책과 연계한 국제공동연구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기획·검토 중인 사안으로 변경되어 현재 단계에서는 연구 추진 방식과 참여기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음
- 당초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나, 현재는 관계부처의 기획 방향과 역할 조정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 향후 국토교통부의 연구 기획 구체화 및 참여기관 협의 결과를 확인한 후 참여 가능성과 역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기타 협의 사항 - 2026년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 물류세션의 해외 연사 및 토론자 초청과 관련하여 NGO 및 국제기구 관계자는 ITF 측 예산을 활용하고, 기타 민간 전문가는 ITF 외 주최 측 예산을 활용하여 초청 가능함 - 양 기관간 LOI 체결은 2026년 10월 이후 세부 추진 일정과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2027년 ITF 서밋에는 KMI가 주도하고 국제기구 및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세션(Spotlight on Research)을 기획·구성하는 방식의 참여 가능성을 협의함  
업무⑥	5.8.(금) 오전 ITF 서밋 참석
수행계획	□ (오전) 서밋 참석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연구세션 참석 및 글로벌 교통 연구기관 간 최신 연구 동향 공유 - 서밋 전체회의(지역 리더십 기반 회복력 교통 투자 확대 방안) 및 폐막식 참석
수행결과	1) (연구세션) 물리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사례 연구 □ 일시/장소: 2026.5.8.(금) 09:00~10:30 / Congress Center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교통 인프라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자산 보호 중심의 접근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교통 서비스와 접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 차원의 대응 역량 확보가 필요함 ◦ 교량 등 핵심 연결부의 구조적 취약성은 전체 서비스 권역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요 교차 지점 보강과 대체 경로 확보 등 중복성 설계가 필요함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교통망의 취약 지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 모니터링 기술, 디지털 트윈,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 등 기술적 수단과 함께 자원 조달, 조직 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가 병행되어야 함 - 소규모 지자체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선진기술 도입이 쉽지 않으므로, 기존 업무방식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함 ◦ 교통 회복탄력성은 개별 인프라의 강도나 자산 보호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 이후 빠른 복구와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대체 경로, 운영 대응체계, 데이터 기반 취약성 진단, 지역사회 역량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2) (전체회의 및 폐막식) 지역 리더십 기반 회복력 교통 투자 확대 방안 □ 일시/장소: 2026.5.8.(금) 11:00~12:30 / Congress Center □ 참석자: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전체회의) - 회복탄력적 도시교통 구현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확충만이 아니라 서비스 연속성, 시민 체감, 지역 맞춤형 투자, 다층적 거버넌스, 다양한 자원 조달, 주민 참여를 함께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 실행력과 국가 차원의 정책·재정 지원을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스페인·스코틀랜드·이탈리아·한국 등의 정책 연계 사례가 소개됨 - 대중교통은 시민이 회복탄력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영역으로, 팬데믹, 유가 충격, 홍수, 폭염 등 위기 상황에서도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대중교통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지역경제, 건강, 안전, 포용성에 기여하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회복탄력적 투자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버스정류장 개선, 보행·자전거 환경 개선,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 등 소규모·지역 맞춤형 사업도 중요함 - 주민 참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이용자의 불편과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투자 우선 순위와 사업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도시교통 투자와 계획은 기관별로 분절되어 추진되기 쉬우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교통계획, 재정, 주민 수요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함 - 자원 조달 측면에서는 공공재정에만 의존하기보다 판매세, 토지가치 환수, 고용주 기여, 민간 부문 공동투자, 참여예산, 마이크로 그랜트 등 다양한 방식의 자원 조달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 내용(폐막식) 2026 ITF 서밋에서는 회복탄력적 교통 자원 조달을 주제로 인프라 금융, 디지털 전환, 도시 모빌리티, 국제 연결성, 장기적 회복탄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제 화물운송 연결성의 디지털화와 도시교통 발전에 관한 정책 권고가 채택됨 - 차기 의장국으로 체코, 제1·제2 부의장국으로 튀르키예와 일본이 각각 참여할 예정임 2027년 ITF 서밋은 2027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주제는 회복탄력적 교통 거버넌스(Governing Resilient Transport)로 채택됨
업무⑦	5.8.(금) 오후 KMI-OECD 공동연구 업무협의
수행계획	□ (오후) KMI-OECD 공동연구 업무협의 - 참석자: KMI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OECD 예룬 미헬스 정책분석관 등 - 주요 내용 - OECD 「항만 지역의 경쟁력 및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및 협력 방안 협의 - 지역 사례 연구 참여 및 수행 방식 협의
수행결과	□ 일시/장소: 2026.5.8.(금) 14:00~15:30 / Congress Center □ 참석자: KMI 김근섭 선임연구위원, 김은우 연구위원, 안승현 부연구위원, OECD 예룬 미헬스 정책분석관 등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주요 내용

◦ OCED 지역연구 프로그램(「항만 지역의 경쟁력 및 회복력 강화」) 개요

- OECD 측은 2027년 초부터 항만 회복탄력성,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지역발전과 연계한 신규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임
- 동 프로그램은 항만 회복탄력성,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지역발전과 연계해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이 지역경제, 고용, 내륙교통, 산업클러스터, 인프라 투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프로그램 주요 의제는 항만지역 경쟁력 강화, 충격·위기 대응력 확보,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항만 운영 탈탄소화, 오염 저감, 항만 폐기물 순환경제, 신산업 도입, 데이터 센터·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 등이 논의될 예정임
- 프로그램 주요 추진 방식으로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과 지역별 사례연구 등이 포함됨

◦ KMI 소개 및 국제협력 추진 개요

- KMI는 항만, 해운, 해양, 수산 등을 포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며, 항만연구본부는 항만정책, 항만산업, 항만수요, 공공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항만 분야 정책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항만 분야에서는 OECD, ITF, ADB, IAPH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등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함
- 해당 프로그램에 정책자료 제공, 전문가 참여, 국내 관계기관 연결 등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양측은 향후 협력 추진을 위해 자료 공유와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항만이 지역경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산·인천·울산 등 한국 항만의 사례와 정책 경험이 국제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 KMI는 항만 경쟁력, 리스크 관리, 순환경제, 탈탄소화, 산업전환 등 주제별 라운드테이블에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 항만사례 연구를 공동 수행 가능함
- KMI는 한국 항만정책 및 관련 연구자료, 영문 초록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부산항만공사 또는 지자체, 기타 연구소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연결을 지원하기로 함
- OECD는 프로그램 소개자료, 브로셔, 관련 보고서 등을 공유하고, 향후 항만별 관계자들과의 후속 회의를 통해 사례연구 가능성을 구체화하기로 함

